

도입
기도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가정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1.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 보다 더 정하리라
3.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영혼 내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영혼 내영혼 평안해

1.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2. My sin, oh, the bliss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 my soul!
3. And Lord, haste the day when the faith shall be sight,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croll;
The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본문 열왕기하 5:10-15

- 10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 11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 12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 13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 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 15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2 Kings 5:10-15

10 And Elisha sent a messenger to him, saying, "Go and wash in the Jordan seven times, and your flesh shall be restored, and you shall be clean." 11 But Naaman was angry and went away, saying, "Behold, I thought that he would surely come out to me and stand an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and wave his hand over the place and cure the leper. 12 Are not Abana and Pharpar, the rivers of Damascus, better than all the waters of Israel? Could I not wash in them and be clean?" So he turned and went away in a rage. 13 But his servants came near and said to him, "My father, it is a great word the prophet has spoken to you; will you not do it? Has he actually said to you, 'Wash, and be clean?'" 14 So he went down and dipped himself seven times in the Jordan,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man of God, and his flesh was restored like the flesh of a little child, and he was clean. 15 Then he returned to the man of God, he and all his company, and he came and stood before him. And he said, "Behold, I know that there is no God in all the earth but in Israel; so accept now a present from your servant."

나아만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존경받는 용사였고, 전쟁마다 승리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환자였습니다. 세상의 지위나 재물, 능력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력하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많은 금과 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자를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v.10)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답게 특별하고 화려한 의식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요단강은 초라하고 평범했으며, 그의 자존심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시도해보시지요"라고 권하자, 그는 마침내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 또한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v.15) 이 사건의 기적은 단순히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였습니다. 나아만의 교만이 순종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습니다. 순종은 그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한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우리의 논리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거나, 때로는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순종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아만의 교만은 "내가 더 잘 안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겸손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겸손한 순종은 우리의 초점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로 옮겨줍니다. 그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행위입니다. 작아 보이는 순종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분의 임재가 머물며, 그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6)

Naaman was a man of great honor and influence—the commander of the Aramean army, highly respected by his king and victorious in battle. Yet despite his power, wealth, and achievements, he carried a deep shame: leprosy. No amount of status or success could heal him. His story begins as a picture of human limitation—how even the mightiest among us stand helpless without God's mercy. When Naaman heard from a young Israelite servant girl about a prophet who could heal him, he set out with gold, silver, and fine clothing—ready to purchase his miracle. But when he reached Elisha's house, the prophet didn't even come to meet him in person. Instead, Elisha sent a simple message: "Go and wash in the Jordan seven times, and your flesh shall be restored, and you shall be clean." (v.10) Naaman was furious. The Jordan River seemed too ordinary, the instruction too simple. He wanted a spectacular sign or ceremony—something that matched his importance. His pride nearly cost him his healing. But when his servants gently urged him to obey, he humbled himself, went down to the Jordan, and did exactly as God commanded. At that moment, obedience overcame pride, and grace met humility. His flesh was restored, and his heart was transformed. The miracle wasn't just physical—it was spiritual. Naaman confessed, "Now I know that there is no God in all the earth except in Israel." (v.15) His healing became a testimony that God's power is not found through status or show, but through humble obedience. This story teaches us that humility is not weakness—it is the gateway to God's grace. Sometimes God's commands don't make sense to our logic or expectations. He may ask us to do something small, unseen, or uncomfortable. But humble obedience means trusting His wisdom over our own. It is in those moments of quiet submission that the greatest transformations occur. Naaman's pride said, "I know better." His humility said, "God knows best." And that's where healing began. Humble obedience is powerful because it shifts the focus from what we can do to what God will do. It teaches us to surrender control, to let go of appearances, and to walk in faith even when the path seems ordinary.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James 4:6)

1. 나아만은 엄청난 병을 갖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 부응하는 상황을 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위기에 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생각을 내려 놓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내 안에 내려 놔야 하는 기대나 생각이 있다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Naaman had a severe illness, yet he wanted a situation that matched his own thoughts and expectations. Today's Scripture teaches us to lay down our own thinking when we are in crisis, suffering, and pain. If there are expectations or thoughts you need to let go of right now, let's share them together.
2. 나아만의 순종과 낮아짐은 육체의 회복을 뛰어 넘어 놀라운 발견 하나님이 참된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생각한 것 보다 더욱 놀랍게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Naaman's obedience and humility went beyond physical healing and led him to an amazing discovery: that God alone is the true and living God. If you have a memory of experiencing God restoring and guiding your life in ways far more wonderful than you had imagined, please share it.
3. 겸손한 순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부질 없는 소망을 뛰어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내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자리는 상황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Humble obedience enables us to see God's work beyond our expectations and futile hopes. In what situation, place, or toward which person do you need to practice humble obedience today?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ord of love, we believe that You are the God who accomplishes new things in our lives even today. Help us to humble ourselves and to live in obedience, and let us experience Your higher will and its fulfillment in that place. We give You thanks and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1. 나의 기대,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을 내려 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소서.
Help me to lay down my expectations, my thoughts, and my perspectives, and to live a life focused only on Your guidance.
2. 순종을 통해 회복과 새 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삶의 경험이 쌓이고 깊어져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Through obedience, let me see the work of restoration and new beginnings, and let these life experiences grow and deepen so that I may live as Your precious child.
3. 겸손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Through humble obedience, help me to live as a child of light and salt, revealing the glory of God.